일승에서 십여시까지

〈一乘〉 〈十如是〉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② 성불

일승은 일불승으로 중생의 성불을 뜻하는 것이고, 이문은 적문과 본문이다. 삼주는 상근기가 수기를 받는 법설주(法說周)와 중근기가 수기를 받는 비설주(譬說周), 그리고 하근기가 수기를 받는 인연주(因緣周)이다. 사행은 안락행품에 설해진 설법자가 갖추어야 할 신, 구, 의와 서원에 대한 네 가지 행동지침이다. 오사는 오종의 법사로 수지(受持), 독경(讀經), 송경(誦經), 서사(書寫), 해설(解說)하는 법사를 말한다. 육공은 육근공덕을 말한다. 법사공덕품에서 설명되는 〈법화경〉을 통해 얻게 되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공덕이다. 〈능엄경〉에서 설해진 육근 공덕과 같은 수치의 이야기가 나온다.

7유(七喩)는 〈법화경〉 전문에서 설해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비유를 말한다. 이는 예로부터 법화7유라 하여 〈법화경〉의 중요 내용으로 여겨 왔다.

8보는 종지용출품에 나오는 8항하사 수 보살들로 타방 국토에서 온 이 보살들이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화경〉을 수호하고 서사, 공양하겠다고 하자 부처님이 그만두라 하면서 이들의 청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부처님은 그대들이 아니어도 이 경을 수호해 지닐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9유는 앞의 칠유에 두 가지 비유를 추가하여 9유라 한다. 제10 법사품에 우물파는 비유(鑿井喩)가 있는데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나올 때가 멀었지만 진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불지(佛智)에서 아주 멀고 〈법화경〉을 들으면 가깝다는 비유이다. 9번째 비유 부소유(父少喩)는 제15 종지용출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도를 얻은 지 오래 되었다는 말에 25살 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가 흰 머리에 주름 잡힌 백 세 노인을 아들이라 하면 누가 믿겠느냐 하면서 부처님이 도를 얻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 곧 구원겁 전에 성불했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고 청하는 말에서 나오는 비유이다.

여기에 대해 다음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은 모두 말하기를 '지금의 석가모니불은 석가족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사 아뇩다라샴막삼보리를 얻었다.' 하지만 선남자여,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무량 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십여시(十如是)란 여시상(相), 여시성(性), 여시체(體), 여시력(力), 여시작(作), 여시인(因), 여시연(緣), 여시과(果), 여시보(報), 여시본말구경(本末究竟)으로 제법실상을 10가지 측면에서 밝히는 이론이다. 상이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며 성이란 안으로 갖추어진 변하지 않는 성품을 일컫는다. 체란 상과 성을 가지고 있는 주질물(主質物) 자체를 말하고 역이란 체에 갖추어져 있는 힘이다. 작은 운동 조작을 말하고 인은 직접적인 원인 또는 습인(習因)을 말한다. 연은 인을 도우는 조인(助因)으로 과(果)를 불러오는 조건이다. 과는 인으로 생긴 결과이며 보는 연으로 생긴 결과이다. 본말구경이란 처음 상에서부터 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3제(諦)의 묘한 이치를 포함해 똑같이 평등함을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의지하여 천태사상을 확립한 천태 지의(天台 智顗, 538~597)는 이 십여시를 의거하여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을 내세웠다. 일념삼천설이란 사람의 한 생각 속에 삼천의 제법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설이다. 이는 일종의 관법(觀法)으로 1법을 들어 제법을 갖춘다는 의미로 가장 관하기 쉬운 자기의 망심을 관하여 실상의 이치를 터득한다는 주장이다.

〈법화경〉 방편품에 사리불이 방편이 아닌 부처님의 참뜻을 설해달라고 청하자 부처님은 거절한다. 소위 삼청삼지(三請三止)의 장면이 있는데 세 번을 거절하시다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까닭을 말씀하신다. 이를 일대사인연이라 하면서 중생들에게 여래의 지견을 열어주고(開), 보여주고(示), 깨닫게 해주고(悟),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入) 라고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율 경계와 의미의 차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② 도덕적 삶과 계율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불자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도덕적 삶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장점이라고 하거나, 도덕적 삶보다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은 도덕적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간혹 불교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계율(戒律)은 불자가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출가자만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재가자도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출가자든 재가자든 계율을 지켜야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계율의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인도불교와 달리 동아시아 불교권인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에서는 계율을 한 단어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계(戒)와 율(律)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어원과 의미에 차이가 있다. 우선 계(戒, ⓢśīla)는 시라(尸羅)로 음사(音寫)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행위, 습관, 성격, 도덕' 등이다. 이를테면 청정한 습관을 정계(淨戒), 좋은 습관을 선계(善戒)라고 하며, 나쁜 습관을 악계(惡戒)라고 한다. 따라서 계는 마음과 몸에 청정하고 좋은 습관이 붙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율(律, ⓢvinaya)은 비나야(毘奈耶)로 음사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등이다. 따라서 율은 모든 잘못이나 악행(惡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점차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잘못이나 악행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로 인해 율은 출가자의 공동체인 승단(僧團)의 생활규칙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인도불교에서는 계와 율이 그 의미에 따라 달리 쓰였지만, 율장(律藏)이 중국으로 전해져 한역(漢譯)되는 과정에서 그 구분이 모호해지게 됐다. 심지어 학처(學處, ⓢsikṣāpada)의 경우에도 산스크리트 원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戒)로 한역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처는 율장에 전해지는 구체적인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조(戒條)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처를 계라는 용어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 의미상 율(律)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계와 율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계는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율은 타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계는 부처님께서 당시 외도(外道)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어서 이를 어긴다고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율은 실제 수도(修道)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동체의 규칙이어서 이를 어긴 경우 그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켜진다는 점에서 율과 구분되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하기 쉽다. 반면에 율은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계와 구분되지만,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율을 잘 지키려면 계와 율의 장 · 단점을 상호 보완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삶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유연한 적용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불자다운 삶은 그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하는 것이리라.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② 마제(馬祭, 말 희생제)

석가모니 시대 제사 존재했나?

고대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치러졌다. 집안에서 간단히 치를 수 있는 제사에서 왕실의 국가적인 의례까지 다양했다. 한나절이면 끝나는 제사도 있었고, 1년에서 수년이 걸리는 제사들도 있었다. 고대 힌두인들은 제사의 규모가 클수록 희생물로 바쳐야할 동물들의 규모도 커지고 그래야만 신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당연히 왕이 치르는 거대한 규모의 제사에는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불경 여러 곳에는 이러한 당대의 종교풍습을 비판하는 석가모니의 장면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 〈코살라상윳타〉에는 코살라 국왕인 파세나디(Pasenadi)가 '말 희생제(마제, 馬祭)'를 지내기 위해 오백 마리씩의 말과 황소, 산양, 염소 등을 제사장에 준비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많은 동물이 도살될 상황을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고하자, 석가모니는 제사가 무용하다는 뜻의 게송을 읊으며 이를 힐난한다. 결국 제사는 취소된다. 말 희생제와 같은 베다 의례에 대한 비판은 불경에 적지 않게 등장한다.

그런데 이 제사는 과연 석가모니 시대에 존재했던 것일까. 그 가능성은 꽤나 높다. 초기 우파니샤드에도 말 희생제의 상징성이 노래되고 있으며, 마하바라따나 라마야나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 제사의 절차가 그려지고 있다. 말 희생제는 대표적인 인도-아리아인들의 베다 의례이며, 그 역사는 어찌 보면 인도-유럽피언의 공동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형태의 말 희생제가 고대 유럽국가에 퍼져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 이 말 희생제를 지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왕이 늘그막에 자식이 없어 꼭 자식을 얻고 싶을 때, 큰 전쟁을 마친 뒤 백성들을 달래고 민심의 통합을 위해, 또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말 희생제를 치를 수 있다.

석가모니 시대에 말 희생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국왕이나 할 수 있는 왕실의례이며 더 중요하게는 강력한 국력을 갖는 패권 국가에서나 가능한 의례였다. 가령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나라는 할 수 있어도 석가모니의 아버지같이 작은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거의 치르기 힘든 의례였다. 그 이유는 단지 규모가 커서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다. 이 제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이다. 이 제사 절차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말 희생제라고 부르는 '아슈바메다(aśvamedha)는 왕실에서 신중하게 고른 수컷 말을 잘 씻겨서 고삐를 푸는 것으로 시작한다. 말은 1년 동안 마음껏 대지를 뛰어다니도록 방치된다. 선발된 정예 무사들은 무장한 채로 이 말을 뒤쫓는다. 이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보호만 한다. 그러다가 말이 국경을 넘게 되면 무사들은 말을 쫓아가면서 보호해야 하므로 상대방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상대국가가 인정하게 되면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를 영토침공으로 받아들이면 곧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는 패권국가가 아니면 쉽사리 치를 수 없는 것이다.

무사히 1년 동안 말의 방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사들은 말을 왕궁으로 데리고 돌아온다. 돌아온 말은 본격적으로 베다 의례의 희생물로 오른다. 사제들은 말을 잘 씻긴 다음 장막 안에서 목을 졸라 죽인다. 클라이막스는 여기부터다. 밤이 되면 장막 안으로 왕비가 들어와 뻣뻣이 죽어있는 말 옆에 누워 동침한다. 이것은 말과의 성적인 합일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단순한 흑마술적인 장치가 아니다. 수말은 1년 동안 대지를 뛰어다니며 자연의 생기를 마음껏 흡입했을 것이다. 왕비는 죽은 말에 간직된 그 기운을 상징적으로 빨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연의 힘과 야생성을 왕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말한 바처럼 이 의례의 원형은 본래 고대 인도만의 것이 아니다. 고대 아일랜드의 왕들은 그렇게 돌아온 말을 거대한 통에 넣고 삶아 국을 만들었다. 그다음 옷을 벗고 그 국통에 들어가 자신도 그 국의 일부가 된 다음, 그 국을 백성들에게 시음하게 했다. 이러한 힘의 전이(轉移)에 관한 상징성을 고대 인도의 의례에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